



지구촌 양계뉴스

중국

지린성 닭고기공장 화재 발생



중국 동북 지역 지린(吉林)성의 한 닭고기 가공 공장에서 지난 3일 화재가 발생해 119명이 숨지는 대형 인명 피해를 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이 보도했다.

사고는 이날 오전 6시 6분(현지시각) 지린성 덕후이(德惠)시 미사쯔(米沙子)진에 있는 닭고기 가공업체 바오위안(寶源)의 공장 건물 내에서 일어났다. 공장 내에 있던 보일러가 폭발하면서 1만7000㎡ 크기의 단층 철골 건물 내부가 3분 만에 화염에 휩싸였다고 남방도시보

(南方都市報)는 전했다.

이 공장 종업원은 총 1200여명이며, 이 중 300여명이 사고 당시 공장 내에서 닭고기 가공 작업을 하고 있었다. 불이 나자 종업원들은 공장 외부로 통하는 3개의 출구로 긴급 대피했지만, 미처 대피하지 못한 119명이 유독가스에 질식되거나 불에 타 숨졌다. 대규모 작업장인데도 출구가 3곳밖에 되지 않은 데다, 건물 전면으로 통하는 비상구가 잠겨 있어 인명 피해가 더 늘어났다고 반관영 통신 중국신문사는 보도했다. 부상을 당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종업원들은 “3개 출구로 한꺼번에 사람이 몰리는 바람에 피해가 커졌다”고 말했다.

현지 소방당국은 사고 직후 소방차 67대를 동원해 진화에 나서, 이날 정오쯤 완전 진화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가 난 바오위안 닭고기 공장은 지난 2009년에 설립됐으며, 양계와 닭고기 가공

등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이다. 2010년 기준 매출액은 2억3000만위안(약 420억원)이다.

- 조선일보

신형 AI로 하루 1천800억원 피해

중국에서 닭이나 오리 등의 가금류를 키우는 농가들이 신형 H7N9형 조류 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매일 10억 위안(약 1천800억원)의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중국목축업협회가 최근 우한(武漢)에서 개최한 '제6차중국 양계사업발전대회'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신형 AI 발생후 가금류 판매가 급격히 줄어든 데다 가격도 내려가 지금까지 총 400억 위안 이상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고 경화시보가 전했다.

중국에서는 신형 AI 발생 후 전염을 우려해 닭고기 등 가금류와 계란을 꺼리는 현상이 확산했으며 가금류 시장도 폐쇄한 곳이 적지 않아 농가들은 판매에 큰 타격을 입었다.

농가들은 가금류 기피현상이 지속하면 산업 기반 자체가 훼손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농가를 구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루빨리 소비심리를 되살리는 것이라며 신형 AI 전염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정부와 농가가 함께 노력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베이징=연합뉴스


북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북한이 지난 5월 20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 발생 사실을 확인하면서 “조류인플루엔자의 전파를 막기 위한 조치들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날 “중앙수의방역소와 농업과학원 수의학연구소를 비롯한 연관 단위들이 지난 5월 7일 진행한 검사결과 평양의 두단오리 공장에서 놓아 기른 오리들과 철새들의 접촉으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것으로 판명되었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유엔식량 및 농업기구, 국제수지기구 등 유관국제기구들에 발병상황과 관련한 자료들을 통보했다”며 “공장에서 기르던 16만여마리의 오리들을 폐사시키고 엄격한 차단과 격리, 소독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적으로 1360여개의 수의역학감시초소들을 내오고 인원들을 배치했으며 가금과 야생조류들의 상태를 철저히 감시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은 또 “비행장과 항만, 국경역들에서 인원들, 특히 AI 발생지역에서 온 사람들에 대한 검병과 가금류원자재에 대한 검사, 검역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산 가금류의 이동을 당분간 제한하도록 했다”며 “닭, 오리, 비둘기 등을 철저히 가두어 기르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 경향신문